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기업 퇴출 및 압류 방지법을 제정하는 2021 소기업 보호법에 서명

자금난을 입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출 보호법 제정(S471A/A3207)

10개 이하 유닛의 소기업에 대한 압류 방지법 제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기업을 위한 퇴거 및 압류 보호를 확립하는 2021 코로나19 긴급 중소기업 보호법(S471A/A3207)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호 조치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처음 뉴욕에 도착한 이래로 뉴욕주의 기업을 퇴출 또는 담보권 행사로 인한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는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압류 유예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우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10개 이하 유닛의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 전역에 걸쳐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코로나19 긴급 보호법(COVID-19 Emergency Protect Our Small Business Act)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의 중추, 즉 전례 없는 고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뉴욕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재정난을 겪는 사업 소유주 및 소상공인에게 원안의 보호를 추가 확대하기로 입법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 법안이 법제화되면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2주 이상 행정명령이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의해 실제 운영이 중지된 100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5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1 코로나19 긴급 보호법은 재정난에 직면한 주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가 취한 여러 다른 조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먼저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하여 3월 20일에

90일간의 주정부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상업 퇴거 및 압류 유예는 행정명령에 의해 여러 번 연장되었습니다.

12월에 주지사가 법령에 서명한 2020년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방지법 (S.9114/A.11181)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주거 퇴거, 압류 절차, 신용 차별 및 부정적인 신용 보고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고령 주택 소유자 면세(Senior Citizens' Homeowner Exemption, SCHE)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세(Disabled Homeowner Exemption, DHC) 적용 기한을 2020에서 2021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에 더해졌습니다. 주지사는 6월 30일에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에 서명했고 이는 즉시 발효되었으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임차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주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내지 않도록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여, 임차인들이 주거 시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통해 허용했습니다.

Anna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입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코로나19 긴급 중소기업 보호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퇴거와 압류 절차를 중지 시켜 생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뒤처졌다는 이유로 폐쇄될 위협을 겪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Harry Bron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특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사회나 유색인종이 소유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에 더욱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이 팬데믹에 맞서 싸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tel:518.474.8418)

구독 취소